



# 목 차

	<b>빅데이터 동향</b> .....	31
<b>정책</b>	-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한 공무원 ‘면책’된다 .....	31
	- 일상의로 빅데이터 구축...비대면·디지털케어 인프라 풍부 .....	32
	- 각종 재난에 우리집도?...빅데이터로 화재·침수 리스크 미리 살핀다 .....	33
	- 자연재해 예방 지능형 사물인터넷(AIoT) 기술, 한국이 주도 .....	34
	- 분산형 임상 플랫폼 구축...의료 데이터 산업 주도권 확보 .....	35
	-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, ‘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’ 선정 .....	36
<b>기업</b>	- “치킨 팔면 대박 날 듯?”...‘이것’ 썼더니 매출 늘었다 .....	37
	- 포스코이앤씨, 건설업 지능화 선도...시장 예측부터 위험 관리까지 .....	38
	- 구글·AWS·MS 이어...“애플, 대만에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” .....	39
	- 발빠른 스타트업들...빅데이터·시로 시니어시장 ‘정조준’ .....	40





##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한 공무원 ‘면책’된다

- 행정안전부는 ‘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)’ 일부개정 법률안에 ‘적극 행정 면책’ 조항을 신설해,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하는 방안 추진 중
  - 적극 행정 면책 조항은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로,
  - 데이터 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적극 개방한 공공기관 공무원과 임직원이 대상
  - 데이터의 적극 공유·개방을 통한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와 데이터 행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- 위 제도의 도입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기반이 되어 공공 서비스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민 생활 편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

<디지털플랫폼 정부 비전 및 목표>

비전

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

목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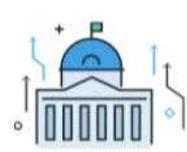
편안한 국민

선제적·맞춤형 서비스



혁신하는 기업

디지털플랫폼정부  
혁신의 동반자



과학적인 정부

인공지능, 데이터 기반으로  
일 잘하는 정부

-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선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나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기관 및 부처 간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가 어려웠음
-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으로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외에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, 감사원 등 범부처 간 협력 중

출처 : 전자신문(2024.07.15.)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한 공무원 ‘면책’된다



## 일상의료 빅데이터 구축...비대면·디지털케어 인프라 풍부

-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‘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’ 내 성공적인 유전체 정보 활용 실증을 위해 에스토니아의 시스템에 주목
  - 에스토니아는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인프라를 통해 일상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안전하게 보관하여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있음
- 에스토니아의 바이오뱅크는 ‘E-health’와 ‘전자처방전’ 시스템을 질병 예방 및 치료,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등에 활용하고 의료시스템의 편의성을 제고
  - 2008년 출시된 ‘E-health’ 서비스는 자국내 의료 공급업체들의 데이터를 통합해 전 국민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총 4,066만 개의 진료서류와 22만 명의 환자 사례 등을 보유
  - 이는 전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로 유전체를 빅데이터화한 사례로 자발적으로 동참한 자국민 20만 명의 DNA, 혈장, 백혈구 등의 유전체 정보를 통해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맞춤형 진료에 활용
  - 2010년 도입된 ‘전자처방전’은 2015년 기준 발급 비율이 98%에 달하며, 환자들의 신분증 제출만으로도 의료진의 진료내역 등의 확인과 편리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짐
-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검진 기록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공공의료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나 관련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활용에 한계가 존재
 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, 각 병원 등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데이터의 통합이 불가능해 가명정보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이 어려운 상황
  - 에스토니아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 실증, 공동 R&D 등을 통해 국내 AI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및 해외 진출이 기대됨

<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 연구원이 유전체 정보를 관리하고 한국 방문단에게 설명하는 모습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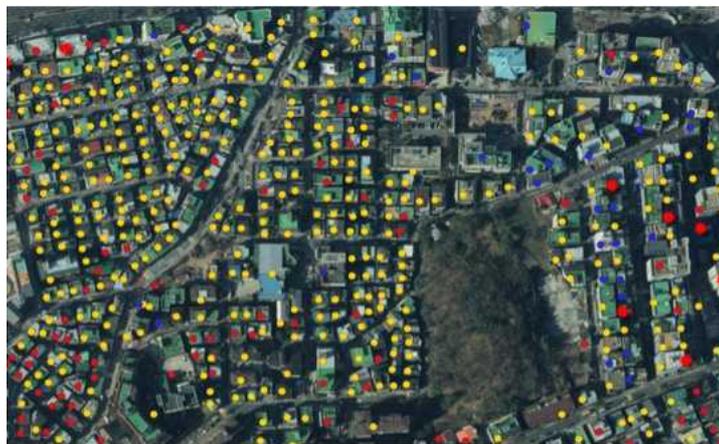
출처 : 강원도민일보(2024.07.11.) 일상의료 빅데이터 구축...비대면·디지털케어 인프라 풍부



## 각종 재난에 우리집도?...빅데이터로 화재·침수 리스크 미리 살핀다

- 건축공간연구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건축물의 화재 및 침수 리스크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, 화재와 침수에 취약한 건축물을 찾아내 적극적인 예방 지원
  - 분석 모델을 통해 서울시 관악구 지역의 약 3만 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·침수 리스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, 약 26%의 건축물이 화재 리스크가 높고 약 1.5%의 건축물이 침수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건축물 화재 및 침수 리스크 지도>



 0 50 100 m
 
 ● 침수 및 화재위험건축물    ● 화재위험건축물  
 ● 침수위험건축물            ● 건축물

건축물 화재 및 침수 리스크 지도(노란색: 화재 및 침수 리스크 모두 낮음, 빨간색: 화재 리스크 높음,  
 파란색: 침수 리스크 높음, 별표: 화재 및 침수 리스크 모두 높음)

출처: 조영진 외(2023, p.105)

- 화재 리스크 분석 모델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랜덤포레스트를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정확도는 78%로 평가
  - 서울시의 2017-2021년간의 건축물 화재 발생 및 피해액 데이터를 학습시켰으며 도로 연결성·인구수·온도 등의 변수가 리스크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
- 침수 리스크 분석 모델로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TabNet Classifier를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정확도는 88%로 평가
  - 서울시의 2016-2022년간의 건축물 침수 피해액 데이터를 학습시켰으며 건축물의 용도, 높이, 구조 등의 변수가 리스크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
- 연구 결과 법적 의무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이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안전예방안전 시스템 구축 및 법·제도 개선이 필요

출처 : News1(2024.07.01.) 각종재난에 우리집도?...빅데이터로 화재·침수 리스크 미리 살핀다[집이야기]



## 자연재해 예방 지능형 사물인터넷(AIoT) 기술, 한국이 주도

### ■ 빅데이터를 활용한 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기술이 주목받고 있음

- AIoT(지능형사물인터넷)은 IoT(사물인터넷)과 AI(인공지능)의 융합을 의미하며,
- 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기술은 위성데이터, 기상데이터, IoT 센서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피해 상황을 예측하고 대피 경로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함
- 전 세계 자연재해 감시 AIoT 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에 66억 8,000만 달러에서 2030년 37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

### ■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AIoT 기반 자연 재해 예방 특허출원은 지난 10년 (2012~2021년)간 모두 1,598건으로 연평균 19.5% 증가

-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 출원이 775건으로 48.5%를 차지했고 미국(290건, 18.1%), 일본(230건, 14.4%), 중국(164건, 10.3%)이 뒤를 이었음
- 기술 유형별로 살펴보면, 지질재해 분야 출원량이 54.1%로 가장 많았으며 풍수해(23.9%), 기상재해(17.0%), 해양재해(7.7%)가 뒤를 이었음
-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 풍수해가 급증하면서 관련 예방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풍수해 분야의 출원 증가율이 연평균 28.9%로 가장 높았음
- 출원인별로 살펴보면, 삼성전자(36건), LG전자(35건)으로 1위와 2위를 기록

<특허출원 동향[국적별,기술 유형별]>

구분	한국	미국	일본	중국	기타	합계
지질재해	343 (21.5%)	177 (11.1%)	117 (7.3%)	117 (7.3%)	68 (4.3%)	822 (51.4%)
풍수해	219 (13.7%)	43 (2.7%)	77 (4.8%)	15 (0.9%)	28 (1.8%)	382 (23.9%)
기상재해	168 (10.5%)	38 (2.4%)	7 (0.4%)	22 (1.4%)	36 (2.3%)	271 (17.0%)
해양재해	45 (2.8%)	32 (2.0%)	29 (1.8%)	10 (0.6%)	7 (0.4%)	123 (7.7%)
<b>전체</b>	<b>775 (48.5%)</b>	<b>290 (18.1%)</b>	<b>230 (14.4%)</b>	<b>164 (10.3%)</b>	<b>139 (8.7%)</b>	<b>1,598 (100%)</b>

출처 : 특허청(2024.06.23.) 자연재해 예방 지능형사물인터넷>기술 한국 주도



## 분산형 임상 플랫폼 구축...의료 데이터 산업 주도권 확보

■ 중소벤처기업부의 ‘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’에서 강원특별자치도(이하 강원도)가 ‘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’로 최종 선정

- 강원도는 그간 규제자유 특구 사업인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보임

<특구별 사업내용 상세 및 추진 성과>

특구명	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	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
지정시기	- 2019. 7. * 1차 특구	- 2021. 8. * 5차 특구
사업기간	- 2019. 8. ~2025. 8. (6년)	- 2021. 12. ~2023. 11. (2년)
총사업비	- 236억 원(국비 132, 도비 104)	- 130억 원(국비 75, 도비 38, 민자 17)
특구사업자	- 총 33개(기업 10, 병원 16, 기관 7)	- 총 19개(기업 13, 병원 3, 기관 3)
사업내용	- 실증사업: 6개(비대면의료 등) -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①당뇨, ②고혈압 ③만성질환 모니터링 및 진단·처방 허용 ④DUR활용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 ⑤Io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⑥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 이용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	- 실증사업: 4개(정밀의료 기술개발) ①만성 간질환 진단·예측 정밀의료 시술루선 ②전립선암 예측 정밀의료 시술루선 ③뇌손상 환자 치료 전략 시술루선 ④안면골 골절 진단 시술루선 ※ 의료데이터 안전활용 체계 구축 -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 2개소(춘천·원주) * 과기부 '데이터 안심구역, 지정(춘천, '23.2월)
추진성과	- (기업·고용) 기업유치 38개사, 189명 - (투자유치) 벤처캐피탈 등 2,024억원 - (특허·인증) 총 45개(특허 25, 인증 20) ※ 중기부 우수특구 선정('23. 8월) / 기관표창('23. 11월)	- (기업·고용) 기업유치 4개사, 94명 - (투자유치) 벤처캐피탈 등 213억원 - (자식재산권) 실증R&D 특허(출원 13, 등록 2) - (규제개선)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및 신의료기술평가 평가과정 개선
운영현황	- 5개사업 실증 종료('23. 8월) - 임시허가 연장(1개)에 따른 특구기간 연장 * (연료용): '25.8.8.까지	- 특구 지정해제('23.12.1.) - 특구 목적 달성에 따른 지정해제

- 위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‘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’로서 분산형 임상\*과 원격진료 기술 검증 특례를 통해 제품 연구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, 국내 AI 헬스케어 기업 혁신을 주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

\* 모바일로 데이터를 수집해 약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는 환자 중심의 임상

<‘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’ 주요 내용>

특구명	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
추진목적	- 기존 규제자유특구(디지털헬스케어·정밀의료)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특구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
사업기간	- '24. 6. 1. ~'28. 5. 31. (4년간) * 30년까지 2년 연장 가능
총사업비	- 126억 원(국비 78.1, 지방비(도+시) 31.5, 민간 16.5) * 춘천, 원주, 강릉
특구사업자	- 총 120개(지자체 1, 중소기업 101, 중견기업 2, 대학 6, 병원 5, 혁신기관 5)
사업내용	-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 해소, 글로벌 실증환경 구축, AI 헬스케어 제품 인증·허가 등 주주기 해외시장 수출 지원
추진상황	- 글로벌 혁신 특구 공모(중기부) 및 선정(전국 4개 지자체): '23. 12. 28. -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의결(동리 주재 특구위원회): '24. 4. 30. -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 개최(중기부, 강원·부산·충북·전남): '24. 5. 21. -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(중기부): '24. 6. 1. ~ '28. 5. 31. (4년간)
향후계획	-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1단계(R&D, 비R&D) 사업 추진: '24. 6. ~ '26. 5.

■ 특구 선정으로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, 자유로운 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개발 및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져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및 해외 시장 진출이 기대됨

- 약 5,31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, 2,61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, 2,451억 원의 투자·수출 유발 효과와 함께 3,86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

출처 : 강원도민일보(2024.07.04.) 분산형 임상 플랫폼 구축...의료 데이터 산업 주도권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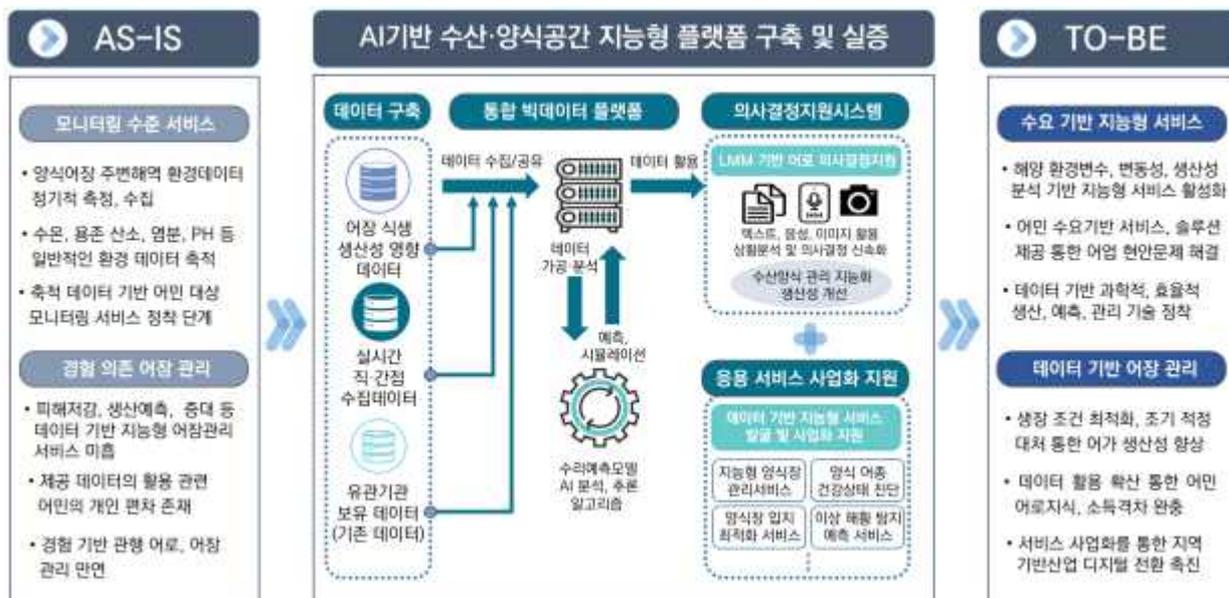
빅 데이터



##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, 'Si 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' 선정

-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'Si 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'에 선정됨
  - 이번에 선정된 'Si 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'에는 2028년까지 5년간 약 365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
  - 이는 지난 3월 선정된 총사업비 426억 원 규모의 'S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'과 함께 전남도의 전통 기반 산업인 농수산업에 빅데이터,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능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Si 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빅데이터와 Si를 활용해 수산·양식산업의 현안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
  - 도내 5개의 김·전복 양식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및 생육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, 이를 활용해 환경·생육 예측 솔루션과 S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
    - \* 고흥군, 신안군, 완도군, 진도군, 해남군
  - 그 외에도 제품 실증, 시험인증 지원,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AI-수산 융합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남 수산·양식산업의 미래산업화에 기여할 방침

<'Si 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' 추진 내용>



빅 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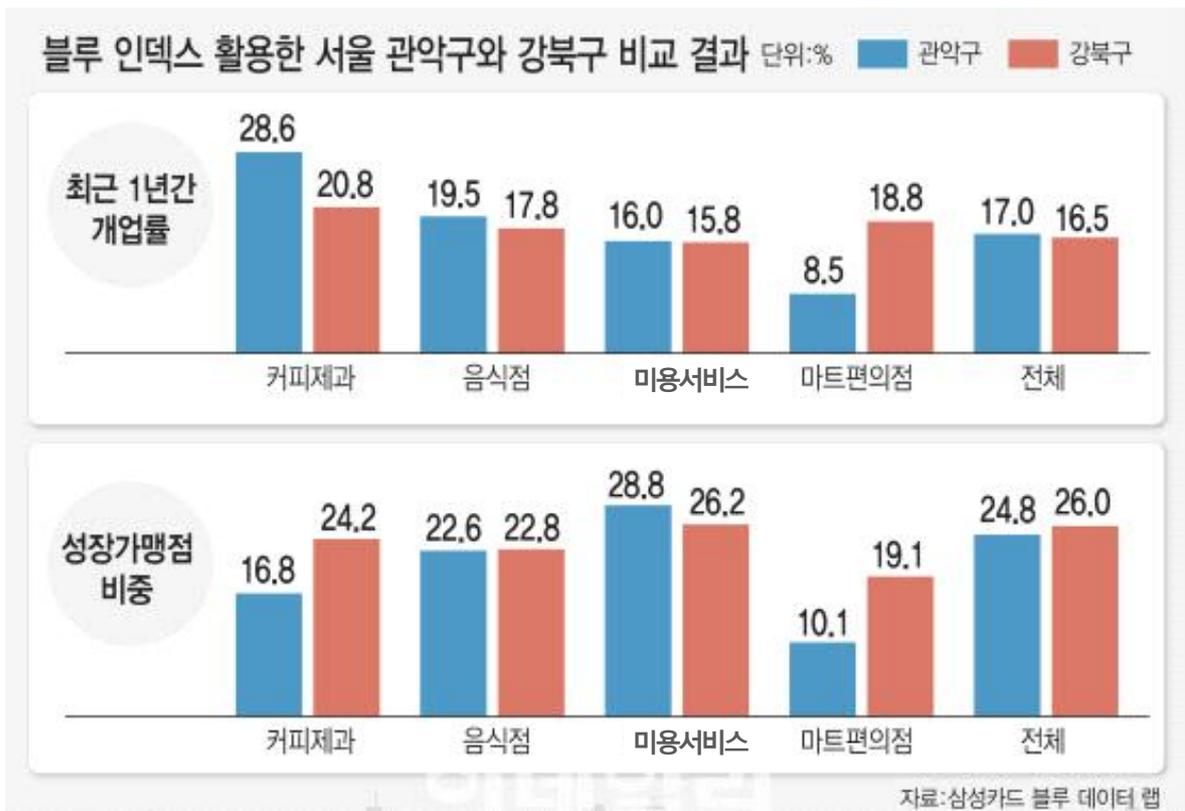
출처 : 전남일보(2024.07.04.)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, 'Si 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' 선정



## “치킨 팔면 대박 날 듯?”... ‘이것’ 썼더니 매출 늘었다

- 삼성카드는 소비 관련 빅데이터 지수인 ‘블루(BLUE) 인덱스’의 소비·인구·소상공인 통계 등 결제 빅데이터를 무료로 개방
  - 블루 인덱스는 지역별 온라인 소비지수, 지역별 생활인구지수, 지역별 외국인 소비지수, 소상공인 통계 등 총 4개의 지수로 구성
  -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지역과 기간 변경을 통해 인덱스 비교가 가능
  -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리포트 등도 별도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활용 가능
- 소상공인 등은 창업이나 영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으며 민간·공공 연구기관에서 지역별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
  - 그 예시로 최근 1년간 을지로3가는 고기를 파는 식당이, 종로 3가는 주점이, 성수동은 양식과 아시안 식당의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

<블루 인덱스 활용 결과 예시>



- 삼성카드는 블루 인덱스 외에도 추가로 지수를 개발해 공개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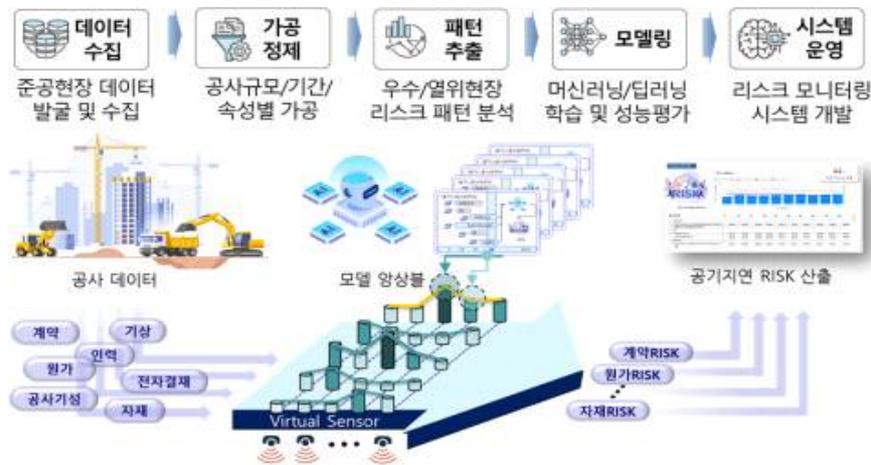
출처 : 이데일리(2024.06.28.) “치킨 팔면 대박 날 듯?”... ‘이것’ 썼더니 매출 늘었다



## 포스코이앤씨, 건설업 지능화 선도...시장 예측부터 위험 관리까지

- 포스코이앤씨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설 현장의 지능화를 위해 다양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며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
- 대표 AI 기술로는 ‘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시스템’이 있음
  - 전국 219개 시군구 지역의 10년간 수급, 가격, 거래, 개발 호재, 경제, 시장 지표 등을 데이터화 하고 AI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해 시장 현황 파악
  -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 인자를 도출해 주택 공급이 필요한 도시를 발굴하고 적정 공급 규모와 시기를 판단하는 데 활용
- 과거 공동주택 프로젝트 수행 실적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에 활용
  - 철근, 레미콘 등 시황성 자재의 가격을 예측하는 ‘자재 가격 예측 시스템’은 시계열 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최장 6개월 미래 가격과 위험도 지수를 파악해 최적의 구매 전략 수립 지원
  - 철근 사용량을 예측하는 ‘철근 소모량 예측 모델’로 과거 시공한 공동주택의 타입별 철근 사용량을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출해 안정적인 철근 수급과 시공 품질 확보 가능
  - 공사, 조달 인력, 원가 등 ‘주요 요인별 공기 지연 위험도 측정 모델’을 이용한 공사 초기 이상 징후 파악과 선제 대응으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문제를 최소화

<공동주택 공기지연 리스크 조기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>



- ‘지능형 폐쇄회로(CC)TV 안전가시설 설치 모니터링 시스템’으로 영상 정보를 AI 기술로 분석하고 추락 방지 덮개, 안전 난간대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치 알림 제공
- 드론 촬영과 AI 기술을 접목한 이미지 분석 플랫폼인 ‘AI 균열 관리 솔루션’을 이용해 공동주택 콘크리트 외벽 균열 조사

출처 : 아시아경제(2024.06.25.) 포스코이앤씨, 건설업 지능화 선도...시장 예측부터 위험 관리까지

빅 데이터



## 구글·AWS·MS 이어...“애플, 대만에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”

- 대만은 2010년 ‘아시아 실리콘밸리 육성 계획’과 2018년 ‘스마트 대만’ 전략을 발표하는 등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중
  - 데이터센터는 AI, 클라우드,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신설 및 증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힘쓰고 있음
  - 대만은 ‘아시아 실리콘밸리 육성 계획’으로 제조업에 AI와 IoT 등 신기술 역량을 융합시키고, ‘스마트 대만’ 전략을 통해 AI 분야 인재 5천 명을 육성하는 등 대만을 AI 연구개발 허브로 만들고자 함
-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선도하고 있는 대만에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설립이 이어지고 있음
  - 구글은 2011년 대만에 아시아 최초로 데이터센터 설립을 선언한 뒤 2년 뒤 6억 달러를 들여 완공
  - 엔비디아 CEO가 대만을 'AI 전진기지'로 부각하면서 두 번째 AI 슈퍼컴퓨터 센터 설립을 계획 중
- 애플도 대만 북부 지역에 데이터센터 건설에 1,000억 대만달러(약 4조 3,000억 원) 이상을 투자할 예정
  - 애플은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협력하여 AI 칩 개발 중



## 발빠른 스타트업들...빅데이터·AI로 시니어시장 ‘정조준’

-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시니어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등장 중
  -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 명으로 총인구의 18.96%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는 20%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
  - 최근 시니어 사업의 특징은 돌봄, 요양 서비스 외에도 헬스케어, 주거, 여가, 여행 등 영역을 확장하고 IT기술과 AI,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음
- 스타트업 ‘지냄’은 ‘고:요 웰니스&다이어트 센터’를 통해 5070세대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지원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
  - ‘고:요 웰니스&다이어트 센터’에서는 개인의 건강 지표를 데이터화하고 AI로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
  - ‘고:요 웰니스 아카데미’를 운영해 중장년층의 웰니스 라이프 실현을 돕고 ‘고:요 케어하우스’에서 항암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시니어들의 숙박 서비스도 준비 중
- 장기요양사업 스타트업 ‘케어링’은 IT기술을 접목해 데이케어센터와 요양보호소 강사 확대, 서비스 향상 등 시장 변화를 주도
  -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 ‘매일 마시는 단백질 두유’를 출시하며 식음료 사업까지 확장
- 돌봄 서비스 플랫폼 ‘케어네이션’은 환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‘데이터랩’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‘대한민국 돌봄 동향 리포트’를 정기적으로 발간 중
  - 그 외에도 AI를 활용한 맞춤형 간병인 추천 솔루션과 간병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르신 컨시어지 스타트업 ‘포페런츠’와 협력하여 돌봄 여행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
- 시니어 시장을 공략하는 스타트업들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
  - 헬스케어, 요양, 여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보이며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